

고산공  
식료공장

# 고산강산

2

2025년

루게 제426호 월간



표지: 파수고장에 펼쳐진 새 선경

철령아래 사과바다와 더불어 사회주의선경이 태어난 파수고장에 조선로동당이 펼친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첫 실체들이 솟아났다.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으로 하여 운택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된 고산군인민들의 얼굴마다에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2 ||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진 려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린 선물

5 || 산호조각 《백곰》

일화

6 ||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수기

7 || 그날의 당부를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8 || 보금자리

10 ||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

수기

11 || 황금해력사창조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12 ||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떠올린 지방중흥의 실제들

16 || 지방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건재생산기지

20 || 과학기술력은 종합적국력의 기초이고 핵심이다

22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면적릉성기를

대담

23 || 위포국가상과 증대되는 지적재부

24 || 탐구의 주로를 달려

26 || 그라펜의 응용범위를 넓혀가는 사람들

문답

29 ||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지구로

30 ||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월미도축구단

32 || 가족중창단

34 || 늘어나는 가지수, 향상되는 질

36 || 생활의 향기와 정서를 더해주는 차문화

조선로리

38 || 만선회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 조국방문단  
성원들의 문학작품중에서

39 || 과거의 의미

조국방문

40 || 한생의 추억으로

인상기

43 || 졸업후 나의 목표

43 || 총련의 역군으로 준비하겠다

애국의 넓은 대를 이어

44 || 관록있는 녀성바이올린연주가

조선의 명승

46 || 삼일포

고향소식

48 || 애국명장의 고향을 찾아서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2 || 대성산성

지명유래

54 || 강동군과 《홍산전설》

55 || 우리 민족의 이름짓기풍습

56 || 정월대보름과 달맞이풍습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진 려정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4년 9월

내 조국 어디 가나 그리움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2월이다.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가정과 일터, 하늘땅에 차고넘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3돐을 맞으며 조국인민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더듬어보고있다.

그이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주시고 인민생활향상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중엽 조국과 인민앞에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민족의 대국상후 적대세력들은 사면팔방에서 압살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여왔다.

항시적으로 침예한 정세가 가셔지지 않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으면 안되였던 시련의 나날 그이께서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시려 군력강화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인민이 겪는 어려움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저리시였지만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부르시며 헌신과 로고의 자욱을 인민군부대들마다에 새기시었다.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군력강화를 위해 철령과 오성산 등 조국방선의 전호가와 고지들을 찾고 또 찾으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장정은 조국을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외국의 한 언론은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에 직면해있고 장기간 제재를 받아온 이 나라가 누구도 감히 알볼수 없는 무력을 건설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체로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수단을 보유하였다. 령도자가 큰 결단을 내리고 힘있게 내밀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그런 성과를 거둘수 없다.》라고 보도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치신 선군장정은

# 산호조각 《백곰》

사회주의결사수호의 길,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여척으로 다진 애국의 대장정이였다.

우리 조국을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조국인민은 부강조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나갈수 있었다.

인민을 것처럼 열렬히 사랑하시며 인민의 요구라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을 평생의 지론으로 삼으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일하면서 제일 아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이라고, 하루를 열흘맛잡이로 일을 하여도 모자라는것이 시간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1초를 1시간이 되게 늘일수만 있다면 그만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쪼개가며 일하시면서도 시간이 모자라 1초를 1시간으로 늘이지 못하는것을 두고 그리도 안타까와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생애의 하루하루를 인민을 위한 현저지도로 이어가시였다.

2011년 9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평양8월풀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8월풀을 가지고 단맛감을 생산하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그이께서는 새로 장비한 설비들의 기술적특성과 성능,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것은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단맛감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금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밀쌈직장과 함께 만수대지구건설장도 돌아보시였다.

겉쌓이는 피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온 하루를 깡그리 바치신것은 이뿐만

이 아니다.

봉화비누공장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들도 같은 날에 찾으시여 생산정상화와 질좋은 제품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고 북방의 맵쌀 추위와 세찬 눈보라를 헤치시며 사회주의건설장들도 찾으신 그이이시였다.

그이의 하루하루는 이렇듯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것으로 일관되였다.

하여 그이께서 생애의 전 기간 현저지도하신 거리는 지구를 근 17바퀴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에 달하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국헌신의 장정으로 이 땅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이께서 조국땅 방방곡곡을 주름잡으시며 이어가신 애국헌신의 대장정과 더불어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웠던 고난과 시련의 어두운 장막이 가셔지고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기적들이 려이여 창조되였다.

자체의 힘과 기술을 과시하며 날아오른 인공지구위성들, 온 나라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로 되는 그 하나하나의 자랑찬 성과들은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과 맞바꾼 고귀한것이며 그이께서 뿌려주신 씨앗에서 움트고 열매맺은것이였다.

하기에 조국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신으로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알찬 열매로 주렁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며 일해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력사는 위대한 계승으로 빛난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찬연히 빛나고있다.

조국인민은 확신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념원하신대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강국으로 빛을 뿌릴것이라는것을.

엄향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캐나다의 동포조직에서 드린 선물  
1995년 2월

#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 식생활을 우리 식으로

2004년 2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책임 일꾼들에게 식생활을 우리 식으로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빵과 밥 그리고 옛문제를 화제에 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밀가루로 만든 빵은 건강에도 좋다고, 빵은 유럽사람들이 만드는 흰 빵이나 검은빵보다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누런 빵이 더 맛있다고 하시면서 빵은 우리 식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쉬워가지고 만들어야 구수하고 맛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밥은 현미밥이 더 맛있다고, 현미밥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도 있으므로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인민들에게 옛을 많이 만들어 공급할데 대해서도 이런 내용의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예로부터 조선사람들은 사랑보다 옛을 더 좋아하였다. 옛은 한가지로 만들지 말고 물엿도 만들고 강엿도 만들고 가락엿도 만들어야 한다. ...

여기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식생활을 두고 깊이 마음을 쓰신 그이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어리여있었다.

## 안타까움

2005년 1월 어느날 어느한도의 공장, 기업소지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제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오늘 동무들과 같이 양력설을 쇠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일꾼들이 의아해하자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께서는 제기되는 일이 많아 아직 양력설을 쇠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지금같이서는 다가오는 설명절도 쇠지 못할것같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초가 1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내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1초가 1시간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일하면서 제일 아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1초를 1시간이 되게 늘일수만 있다면 그만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였다.

일꾼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잠깐이라도 때맞추어 쉬여주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지들 말라고, 우리 힘을 합쳐 일을 더 잘해나가자고, 올해에는 어떻게 하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어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경을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은 조국과 인민을 위

하여 바치는 시간이 모자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1초가 1시간이 되어주기를 그리도 절절히 바라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 다른 길이 없다

2009년 2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책체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기업소의 개건공사정형을 료해하시고 생산실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철생산체계를 확립하는 문제로 화제를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비폭스제철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폭스제철법을 받아들이는것은 금속공업의 자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비폭스제철법이 가능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머리를 기웃거리거나 이것저것 타산하면서 재지 말고 그 방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립장을 가지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세상에 비폭스제철법이 있는것은 사실인것만큼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여 성공시켜야 한다시며 무조건 우리는 비폭스제철법에 의한 철생산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후 김철의 로동계급은 비폭스제철법에 의한 철생산체계를 완성하였다.

\* \* \*

수 기

# 그날의 당부를 안고

오늘도 학교로 들어서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면 영광의 그날이 되새겨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전후시기인 1957년 3월 장산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길로 우리 학교를 찾아주시였습니다.

교사밖에 있는 우물을 보시고 추운 겨울에 찬물을 마시면 배앓이를 할수 있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습니다.

책상의 높낮이도 가늠해보신 그이께서는 학생들의 신체발육에 지장이 되지 않게 책상의 높이를 정해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학교에는 체육실, 음악실을 비롯한 소조활동에 필요한 실들과 학생들의 과외교양에 필요한 도서실도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조활동실을 잘 꾸리고 거기에 여러가지 악기와 실험기구를 잘 갖추어주면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우는데 좋을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원은 중요하고 힘든 직업이라고 교시하시였다고 하시면서 교원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교원의 자질이 높으면 학생들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원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시간을 바쳐가시며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학교앞에 대도로가 있어 좀 복잡할수 있지만 뒤에는 장산을 끼고있어 아주 리상적이라고, 앞으로 장산이 푸른 숲으로 설레이게 되면 학생들이 산에 올라가 공부하기 좋겠다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점심시간도 바쳐가시며 학교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원들도 바뀌고 교사도 더 멋있게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원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당부는 오늘도 저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옵니다.

저는 언제나 그이의 당부를 되새기며 교수교양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저부터가 새 교재들을 깊이있게 연구하는 한편 우수한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교원들을 직접 말아서 이끌어주기도 하고 모의수업에 자주 출연시켜 강의술과 실력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년한이 오랜 교원들의 시범출연도 자주 조직하



였습니다.

교원들의 자질은 그대로 학생들의 실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나날 교정에는 학풍이 서고 교원호상간, 학생호상간 실력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하여 교육사업에서는 전진이 이룩되고 교원들은 해마다 교수경연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범교수자대렬도 훨씬 늘어난것은 물론 우리 학교는 전국에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이 어려있는 교단에 서있다는 영예와 긍지, 그이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학생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아주시는다는 자각을 안고 앞으로 교수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서성구역 장경소학교 교장  
공훈교원 최일숙

# 보 금 자 리

우리는 1933년 2월중순에 마로인의 안내를 받으며 왕청유격구로 향하였다. 20일동안 산전막에서 정치토론만 하며 갑갑하게 지내던 18명의 유격대원들은 행길에 나서자 신바람이 나서 걸음을 다그치었다. 겨우내 겪어온 시련의 흔적들이 채 가셔지지 않았건만 대오는 청신하고 생기 발랄하였다.

지금 왕청지방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고장의 특징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현장의 연설이 길고 소학교의 길이가 길고 골짜기가 긴것으로 유명합지요 하는 기지있는 말로 대답하군 한다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룡질을 즐기는 왕청지방 해학가들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어낸 말인것 같다.

1933년 당시의 나에게 만일 그런 명구가 있었다면 모진 곤경을 치르고난 전우들에게 한바탕 유쾌한 웃음을 터뜨릴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왕청이 어떤 고장입니까?》 하는 대원들의 물음에 그저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대답밖에 해주지 못하였다.

망명자가 많은 고장이라는 말은 혁명가가 많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왕청은 간도의 여러 현들중에서도 일찍부터 반일독립운동이 가장 백열화된 지방의 하나였다. 백전로장 홍범도가 일본군 《토벌대》를 대패시킨 전장도 여기에 있었고 서일, 김좌진, 리범석 등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독립군의 활동기지도 이곳에 있었다. 리동휘는 이 일대에서 독립군인재 양성에 심혼을 바치였다.

독립군의 맹활약과 독립운동자들의 출몰은 이 지방인민들의 민족적각성을 촉진시키였고 그들을 반일애국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독립군운동이 조락단계에 들어서고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연해주지방과 소만국경일대로로 자취를 감춘 다음부터 왕청지방에서의 민족해방투쟁령도권은 점차 공산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었고 투쟁의 주류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민족주의자들이 걸구어온 애국애족의 토양우에서 새 사조의 선각자들은 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였다.

그러나 그 운동의 동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족운동의 주체로 등장했던 사람들가운데서 압도적다수는 공산주의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공산주의운동대렬내에는 처음부터 공산주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민족주의를 신봉하다가 사상개조과정을 거쳐 점차 공산주의자로 된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런 주의에도 관계하지 않은 말쑥한 새 사람들만을 가지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혁명발전에서 우리가 지침으로 삼고있는 계승과 혁신의 원리이다. 공산주의사상이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의 사상이고 공산주의운동이 모든 형태의 혁명운동가운데서 최고단계의 혁명운동이라고 하여 이 운동이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발생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어쨌든 왕청은 반일투쟁력사가 깊고 군중토대가 좋으며 정치적기반도 튼튼한 곳이었다. 조국의 룡읍지구와의 거리도 가깝고 간도지방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중심지인 연길, 룡정지구와도 이웃하고있어 이모저모로 좋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고장에 혁명가들이 많이 집결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학을 하려면 일본으로 가고 홀레브를 먹으려면 소련으로 가고 혁명을 하려면 간도로 가라는 류행어는 동만을 광복운동의 최전방으로 보고

그곳을 끝없이 동경하던 당시 조선청년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있다.

간도로 가는것은 화구앞으로 가는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더 본때있게 하기 위하여 그 화구앞으로 주저없이 돌진하였다.

유격구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도 경쾌했던것은 거기에 기름진 음식이나 폭신한 잠자리가 기다리고있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생사를 같이할 동지들이 있고 인민이 있고 우리가 자유롭게 디디고다닐 땅이 있으며 일본천황의 칙령이나 총독제령으로써도 뒤집어버릴수 없는 우리 식의 참세상이 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가 마로인을 앞세우고 전각루로 향하던 1933년 2월은 동만각지에서 유격근거지창설사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어 그 생활력을 나타내기 시작한 뒤였다.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리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이미 겨울명월구회의에서 그 사상을 제시하고 방침으로 채택했던 중심과업의 하나였다. 우리는 그때 무력항쟁을 하자면 진지를 꾸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진지란 유격근거지를 의미하는 우리 식의 소박한 표현이었다.

우리가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논의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창설에 관한 문제를 독립적인 의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방도를 다시금 진지하게 모색한것은 1932년 봄의 소사하회의에서였다. 이 회의가 있는 후 우리는 간도 여러 지방들에 유능한 지도핵심들을 파견하여 농촌혁명화를 다그치였다. 이것은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이었다.

혁명화된 농촌지역은 유격구가 꾸려질 때까지

반일인민유격대가 발을 붙이고 활동할수 있는 림시거점으로 되었으며 유격근거지가 탄생할수 있는 바탕으로 되었다.

겨울명월구회의에서 리상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었던 안도, 연길, 왕청, 화룡, 훈춘의 산악지대들인 우복동, 왕우구, 해란구, 석인구, 삼도만, 소왕청, 가야허, 요영구, 어랑촌, 대황구, 연통라자를 비롯한 여러 고장들에 유격근거지가 속속 건설되었다.

간도의 산악지대들에 건설된 유격구역들에는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견인불발의 노력과 그들이 겪은 피어린 진통이 깃들어있다.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들을 꾸리는데서 량성룡, 리광, 장룡산, 최춘국, 주진, 박동근, 박길, 김일환, 차룡덕, 강석환, 안길, 리국진, 리봉수를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바친 선혈과 로고는 력사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그 당시 국내와 해외에서 한다하는 인물들은 앞을 다투어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에 집결하였다. 왕청지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김백룡, 조동욱, 최성숙, 전문진을 비롯한 북만의 공산주의자들도 소왕청으로 찾아왔다.

소왕청의 새 주민들가운데는 연해주지방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도 있었고 적구에서 다년간 지하활동을 해오다가 정체가 탄로되어 투쟁무대를 바꾼 사람들도 있었으며 조선혁명의 중심이 간도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월경탈출한 국내의 애국인사들과 맑스주의신봉자들도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

# 황금해력사창조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세기와 년대를 이어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혁명의 역사를 거슬러올라가느라면 사연깊은 두자루의 권총에 이르게 된다.

돌이켜보면 20세기초엽 우리 민족의 운명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일제에게 국권을 통채로 강탈당하고 자기의 문화와 이름마저 깡그리 빼앗긴 조선은 살아도 숨칠수 없었고 죽어서도 묻힐 곳 없었던 말그대로 중세기적암흑천지였다. 망국의 비운을 통탄하며 3.1인민봉기로 일제에게 항거도 해보고 의병투쟁과 외세에 독립청원도 해보았으나 차례진것은 칙령자의 야수적인 탄압과 려장들의 랑대뿐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과거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다양한 형태의 투쟁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면서 새로운 투쟁방법을 찾기 위해 모색하시였다. 그 과정에 오직 무장투쟁만이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을 위한 준비사업을 출기차게 벌리시던 나날에 그이께서 추켜드신것은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이었다.

그이께서는 동지들앞에서 이

두자루를 밀천으로 삼아 독립행군을 시작해보자, 지금은 이 두자루가 전부이지만 이것이 새끼를 치고 또 쳐서 200자루, 2 000자루, 2만자루로 될 날을 생각해보라, 총 2 000자루만 있으면 능히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 밀천이 있으니 이것을 자꾸 굴려 2 000자루, 2만자루가 되게 하자고 열정적인 호소로 그들을 불려일으키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을 토대로 하여 그이께서는 동지들과 함께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로 무장을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1931년 12월 명월구회의에서 자체의 힘으로 무장을 갖추기 위한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이것을 기화로 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속에서는 적의 무기를 빼앗는 투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은 1932년 4월 자기의 첫 무장대오인 조선인민혁명군을 탄생시켰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투사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는것과 함께 자체로 무기를 생산하고 수리하여 늘어나는 무기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

하였다. 유격대원들과 유격구인민들은 빈터우에서 풀무와 마치, 집계를 비롯한 몇개의 야장도구들을 마련하여 무기수리소들을 꾸리고 마사진 가마, 보습등을 모아 무기를 만들어냈다.

일제가 그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질려 벌벌 떨던 연길폭탄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 투사들의 불굴의 신념, 자력갱생의 정신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줄칼이 최상의 수단이었던 밀림속의 병기창들에서 투사들은 작탄뿐 아니라 권총, 보총등을 유격전의 특성에 맞게 제작해냈으며 고장난 무기들을 제때에 수리하여 부대들에 보내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당시 일제가 비유했듯이 《창해일속》과 같았지만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 2월 8일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이 창건되었다.

사연깊은 두자루의 권총이 역사에 새겨주는 진리가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무장을 들고 달려드는 적들과는 무장으로 맞서야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강력한 국방력에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이 있다는것을.

김일봉

(진호에서 계속)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정 어린 조치에 의해 우리 수산사업소에서는 100명의 성원들이 조선인민군 제1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양으로 떠나는 우리들을 온 마을사람들이 떨쳐나 환송해주었는데 정말 이때처럼 수산부문에서 일하는 긍지를 느껴본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여도 저희들에게 어떤 특혜와 높은 표창이 기다리고있는지 다는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평양에 올라온 첫 순간부터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려호텔이 우리들의 숙소로 되었는데 그 어디에 가나 수도시민들과 봉사자들이 저희들을 귀빈처럼 맞이하고 환대해주었습니다.

그러던 2013년 12월 26일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인민군수산부문의 혁신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당 및 국가표창을 한사람한사람 직접 수여하시었는데 저에게는 로력영웅칭호증서와 함께 영웅메달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제가 북받쳐오르는 걱정을 안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었는데 그이께서는 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축하한다고, 앞으로도 영웅답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으라

는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이날 우리 사업소의 많은 종업원들도 높은 급의 당 및 국가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이를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는 영광을 지니었습니다.

그이의 대해같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그후 우리는 사업소를 현대적으로 변모시키면서도 물고기잡이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어떤 때는 10여일동안에만도 수천t의 물고기를 잡아들여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5년 11월 22일 세번째로 우리 수산사업소를 찾아주시었습니다.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변모된 사업소를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여기 수산사업소에서 《단풍》호고기배들이 첫 출항을 한 때로부터 황금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수 있다고, 8월25일수산사업소는 《단풍》호고기배들의 고향,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이 쏟아져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는 인민군대에서 류다른 콩대풍을 《이채두경》이라고 하였는데 물고기사태가 난 이 풍경은 《이재어경》이라고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종업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

시였습니다. 거뜬거뜬 베풀어지는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우리 수산사업소는 그해의 물고기잡이에서 1등을 한데 이어 2016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 두배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기적도 창조하였습니다.

그때에도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그 모든 성과를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며 자신께서 오늘까지 이 수산사업소를 4차례 와보았는데 울수록 정이 든다고, 8월25일수산사업소는 《바다 만풍가》의 노래와 더불어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기록하여야 할 수산기지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다 불러주시어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와 같은 정력적인 령도와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름없던 우리 수산사업소가 황금해력사창조의 고향으로, 물고기대풍을 이룩하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일떠서게 되었으며 우리들은 온 나라가 아는 사람들로 될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산사업소에 깃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업적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물고기대풍을 이룩하겠다는것을 결의합니다.

8월25일수산사업소 지배인 윤용일

성천군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들



# 조선로동당의 숙원이 떠올린 지방중흥의 실체들

지방중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의 첫 실체들이 일떠서 준공을 하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인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당과 정부의 최종 대사로 내세우고 온 나라 인민이 다같이 복락을 누리갈 국가부흥의 전면적개화기를 현실로 펼쳐가는 속에 조국에서는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격동의 나날들이 이어지고있다.

지난해말 평안남도 성천군에 이어 올해에도 평안남도 숙천군, 황해남도 재령군과 은천군, 황해북도 은파군과 연탄군, 함경남도 함주군, 함경북도 경성군, 남포시 온천군 등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실체들인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식이 련이어 진행되었다.

준공식장들에는 지방진흥의 새 생활을 남먼저 향유하게 된 지역인민들의 감격과 환희가 끊없이 차넘치였다.

은파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을 선포하는 성대한 의식에서 연설자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창당이래, 건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사변적인 대용단이고 거창한 혁명이라고 하면서 은파군에 펼쳐진 지방중흥의 희한한 전변상은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더 좋은 생활, 더 밝은 앞날만을 안겨주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숙원과 철석의 의지가 떠올린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가 환희의 분출이 되어 준공식장들에 울리는 속에 공장지배인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될 열의 안고 준공레프를 끊었다. 아름다운 꽃보라가 발산하고 수천개의 고무풍선들이 하늘높이 날아올라 경축분위기를 더욱 이채롭게 하였다.

각지에서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각종 식료품과 일용필수품들, 옷가공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진 공장들을 돌아보았다. 줄줄이 쏟아지는 제품들

현대적으로 일떠선 재령군 지방공업공장들



성천군과 재령군에 이어 여러 군들에서도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준공하였다.



은파군옷공장에서



연탄군일용품공장에서



함주군식료공장에서

속천군일용품공장에서

을 기쁨속에 바라보면서 참관자들은 로동당의 은덕으로 더없이 부유하고 행복할 래일을 그려 보며 저저마다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기술전습을 마치고 새 일터의 주인이 된 은천군식료공장 종업원 최금화는 지방공업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현대적인 기대들을 단추로 조종하며 흥겹게 일하는것은 지난 시기 상상조차 해보지 못하였는데 그 꿈만 같은 현실이 우리의 로동, 보람넘친 생활로 되었다고 하면서 행복의 일터에서 고향땅의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해가겠다고 결의하였다.

안은 함주군인민들은 련포온실농장에서는 사계절 신선한 온실남새가,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함주군이름을 단 갖가지 기초식품들과 당과류들, 질좋은 생활필수품들이 쏟아져나오고 희한한 농촌살림집들이 해마다 줄지어 솟아오르니 우리도 도시부럽지 않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기쁨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연탄군 읍 155인민반의 서애순은 옛날에는 돌이 많아 돌모루라고 불리웠던 고장, 돌자랑밖에 할수 없었던 연탄군이 로동당시대에 천지개벽되고 만사람이 부러워할 새 공장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평생에 이런 희한한 경사를 보게

된것은 복중의 복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은덕으로 우리 산골군에도 자랑이 늘어만 간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력사의 이 거창한 전변에는 인민위한 고생을 천분으로 여기시며 지방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써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애민헌신의 세계가 뜨겁게 깃들여있다. 지난해 8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함주군 지방공업공장건설장을 찾아주신 그이께서 새로운 지방공업혁명의 돌파구를 신심있게 열어가고있는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치하해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

들과 파업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에 사소한 결점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한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온 나라의 지방군, 산골군들에 도시부럽지 않은 유족한 생활이 꽃피어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열화같은 숙원이 떠올린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은 우리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적극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활기차게 추동하는 귀중한 재부로 될것이다. 글 김일봉, 사진 리명국, 김영호, 조선중앙통신



경성군에서



은천군에서



구장군에서



구성시에서

# 지방건설을 힘있게 떠미는 건재생산기지

-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인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가 세멘트증산으로 들끓고있다.

무연탄에 의한 소성로조업이래 2023년에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실적을 내어 기업소는 10대최우수기업으로 되었다.

기업소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생산실적을 계속 갱신해가고있다.

기업소의 곳곳에 있는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월생산계획초과완수》 등의 구호들과 속보판들은 기업소종업원들의 높뛰는 숨결을 대뜸 느끼게 하고있다.

실지 기업소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집단적혁신으로 더 많은 세멘트를 증산하기 위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리경호지배인은 《국가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농촌살림집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등을 활기차게 내미는데서 우리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가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세멘트수요는

날로 높아지고있으며 지난 시기의 생산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로부터 기업소에서는 증산투쟁,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생산장성에 계속 힘을 집중하고있다.》라고 하였다.

지난 시기 기업소에서는 소성로보수를 진행할 때마다 기중기차를 리용하다나니 여러모로 지장을 받았다.

해결방도를 찾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모든 소성로들에 문형기중기를 설치하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보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술자, 기능공들은 기중기의 권양능력제고, 주행부설계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풀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갔다. 하여 지난해에는 짧은 기간에 문형기중기를 제작하고 1호, 2호소성로들에 설치하였다.

한편 기업소에서는 원료반입계통에 힘을 넣었다.

직동지구와 직동석고광산, 점판암광산 등의 모든 원료반입계통 공정들의 원료저장능력과 설비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어 짧은 기간에 저장능력이 큰 저탄장이 건설되고 공기분리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점판암과 석고운반능력도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소에서는 소성공정에서 크링카생산량이 늘어나고 질이 높아진데 맞게 세멘트분쇄능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개선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면서 기업소에서는 생산실적을 계속 갱신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지금 기업소에서는 세멘트를 실은 렬차들과 자동차들을 전국의 주요건설장들로 렬이여 떠나보내고있다.

조선로동당이 결심하면 그 어떤 아름다운 세멘트생산목표도 무조건 제 기간안에 생산보장하겠다는것이 이곳 로동계급이 지닌 마음이고 의지이다.

글 강경수, 사진 김성철



# 과학기술력은 종합적국력의 기초이고 핵심이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새로운 승리의 신심드높이 사회주의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마지막 돌격전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이어놓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전면적발전을 지향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과학기술의 위력, 인재들의 활약을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력은 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전환될수 있는 과학기술인재와 과학기술성과, 수단과 방법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력은 종합적국력의 기초이고 핵심이다.

과학기술력이 발전할수록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륜성발전이 담보된다.

과학기술력은 무진막강한 종합적국력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이다.

일반적으로 기초라고 하면 일정한 건물의 지지기반을 의미하는것으로서 건물이 형성되고 유지될수 있는 토대를 말한다. 즉 기초는 단순히 건물의 밑부분이 아니라 해당 건물의 존재를 좌우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로 된다.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력은 종합적국력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건설될수 있게 하는 기초와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국력의 건설은 과학기술력이라는 튼튼한 기초

우에서만 가능하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의 의의와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된다.

사회의 모든 분야의 발전은 물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과학기술의 성과들이 도입되어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사회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폭넓고 심도있게 진행되고 그 결과 사회의 정신문화적 및 물질적재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관계도 부단히 새롭게 변모되고있다.

오늘날에 와서 과학기술을 떠난 제반 사회적관계의 형성, 나라의 물질경제적토대의 굳건한 축성과 사람들의 문명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게 되었으며 이것은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경험에 기초한 토법이나 력사적축적에만 의존하여서는 강력한 국력을 마련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더우기 정보기술, 나노기술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이 아니라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 교육, 보건, 체육, 출판보도와 같은 문화분야의 강력한 발전능력을 마련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결국 발전된 과학기술력을 자원으로, 토대로 할 때만이 막강한 진짜국력을 마련할수 있으며 나라가 발전하게 된다.

과학기술력은 종합적국력을 대표하고 국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는데서 핵심적요소로 된다.

과학기술력이 종합적국력을 대표한다는것은 과학기술력이 해당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데서 기본징표로 된다는것이며 국력강화의 핵심적요

소라는것은 국력제고의 관건적고리, 중심고리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력평가의 징표에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발전된 경제력, 군사력과 같이 사회생활분야들의 발전수준의 질을 기준으로 하여 국력을 평가하기도 하고 총적인 규모나 총생산액, 성장지표와 같이 량적지표에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력평가지표들은 다 나름의 특징과 타당성을 가지고있지만 그 모든 국력들에 공통적인 측면이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정도를 전제로 한다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력이자 국력이고 국력이자 과학기술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과학기술은 사회의 종합적발전에 이바지하는 다른 모든 인자들이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사회의 가장 귀중한 전략적자원인 인재육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통한 생산장성, 군사와 문화의 급속한 발전 등 국가발전의 모든 측면들과 공정들이 과학기술과의 유기적연관속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오늘의 시대의 특징이다.

기계제산업시대에는 주로 육체적로동에 의거하여 사회의 물질적부가 창조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지능로동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물질적부가 창조되고 그 역할은 날을 따라 더욱 확대되고있다.

때문에 현시기 국제무대에서는 과학기술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명줄을 걸고있다. 더 많은 과학기술인재를 확보하고 더 우월한 과학기술을 독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나라와 민족의 사활적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하고도 첨예한 대결로 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국력평가에서 과학기술력은 자연히 핵심사항으로 되고있으며 과학기술력이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서 해당 나라의 국력뿐 아니

라 앞으로의 발전전망까지도 예측하고있다.

과학기술력은 비단 국력평가의 대표적인 징표로 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의 종합적국력을 부단히 강화하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미 강력한 국력을 마련해놓았다고 해도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부단히 그 위력을 증대시켜나가지 못한다면 종당에는 국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국력제고는 현존상태에 머무르면서 아무것이나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여 해결되는것이 아니며 보다 높은 단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고 강화될 때에라야만 나라와 민족의 장래발전을 위한 믿음직한 담보로 될수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비상이 강화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현실은 국력제고의 관건적고리, 중심고리도 다름아닌 과학기술력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과학기술력을 동력으로 하여 앞선 부문은 더 높은 첨단수준에로 전진시키고 뒤떨어진 부문은 그에 적극 따라세울 때 나라의 종합적국력이 비상이 강화되고 국가와 사회가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걷게 된다.

조국이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것도 현존국가발전능력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것과 함께 앞으로의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담보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력이 종합적국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핵심적역할을 담당수행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과학기술력은 종합적국력의 기초이고 핵심이며 과학기술분야가 기운차게 용을 쓸수록 국위와 국력, 국격은 비상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과학원 실장 최현호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전면적통성기를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으로의 첫단계 개척투쟁, 변혁투쟁을 결속하게 될 새년도의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전선의 역할증대를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이자 나라의 자립적발전능력의 증대이며 사회주의의 전진속도이다.

언제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수십년동안에 이룩한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앞서나갈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며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사업 전반을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해나가야 생산을 활성화하고 기술개건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과학기술을 우리 국가의 전면적통성기를 펼치는 보검으로 틀어쥐고 그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앞당겨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다.

과학기술중시, 바로 여기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우리 조국을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기세차게 솟구치게 하는 도약대가 있다.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이 세계첨단수준에 올라선 나라, 과학기술력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강국을 일떠세우시려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이시다.

그이께서 당대회들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길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하며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확고히 담보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정책적과업들을 밝힌 시정연설들에서도 과학기술중시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하며 과학기술을 중요한 국책

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찾으시는 단위마다에서 모든 근로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과학기술을 중시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어느해 1월 새해의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 누구나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고 언제인가 금산포켓갈가 공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공장에서 과학기술 보급실운영을 잘하여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생산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였을 때에는 그토록 기뻐하시며 그들을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었다.

나라의 국력을 떨친 과학자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고 평범한 과학자들을 애국과학자들로 불러주시었다. 그리고 과학자들을 위해 연풍과학자휴양소와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을 일떠세워주시었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현대적인 건축물로 솟아오른 과학기술전당과 전국도처에 일떠선 과학기술보급실들을 즐겨 찾으며 마음껏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 정밀하게 짜여진 전민학습체계에 망라되어 과학의 세계를 탐구하는 근로자들이 나날이 늘어나 과학기술강국의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면모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시고 전체 인민이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우리 국가의 전면적통성기는 앞당겨오게 될것이다.

변진혁

# 위포국가상과 증대되는 지적재부

- 지적소유권총국 처장 김순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우리 나라에서 지식과 기술로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는 속에 전사회적으로 지적재부를 창조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고 봅니다.

처장: 그렇습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적재부를 창조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진행된 《지적소유권사업발전전람회-2024》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습니다.

공업과 농업, 과학기술, 문학예술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활동으로 창조한 다양한 영역의 제품들이 출품된 전람회는 지적재부의 창조와 증대가 국가의 문명과 발전에서 더없이 중요한 동력이라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내놓은 수지복합기밀고리와 착암기정머리용경질합금의 제조방법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 출품한 지능형건물조종체계는 도입전망이 좋은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조선수림무역회사에서도 국내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식물성장조절제 《수림1》을 출품하였는데 참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제기되었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다른 지역들보다 도입일반화할 가치가 큰 제안들을 적지 않게 내놓은것은

물론 함흥감자농마국수와 함경도통배추김치 등 원산지명권을 받게 되는 인기식품들을 내놓았습니다.

1 600여건의 저작물들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자: 전람회에서 위포국가발명가상도 수여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위포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듣고싶습니다.

처장: 예.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는 지난 시기에 적용하던 위포상체계를 개정하고 3년전부터 가동시켰습니다.

위포국가상은 지적재부를 창조하여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와 기구에 가입한 해당 나라에서 공동으로 수여하는 상입니다.

위포국가상에는 위포국가발명가상, 위포국가창작상, 위포국가기업상, 위포국가소년상 등이 있습니다.

위포국가상을 수여받은 대상들은 다른 나라들에 자기의 지적재산을 등록하고 보호받을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리용을 허가해줄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람회에서 룡악산건재공장 연구사 라미순과 청류제약공장 지배인 리근희가 위포국가발명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 위포국가상을 받을 대상들의 추천문건들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자: 나라의 지적재부가 증대되고 위포국가상수상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많아지고있다고



봅니다.

처장: 위포국가상수상자들이 많아진다는것은 우리의 지적창조력이 장성강화되어 조국의 부흥발전을 풍부한 지식과 기술로 떠밀고나가는 과학기술의 주인, 인재들이 늘어난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발전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선정되는 수여대상들에 대한 심의를 과학성, 공정성, 객관성의 원칙에서 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인재들을 우대해주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큼 평가해주는것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습니다.

기자: 예. 앞으로 위포국가상 수여사업이 나라의 지적재부를 더 늘이고 인재강국,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 \* \*

# 탐구의 주로를 알려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도입응용연구실장 길성준은 동력기계연구분야에서 젊고 능력 있는 실력가이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15년전인 희천공업대학 2학년에서 공부할 때 벌써 장자산종합식료공장 당과류생산공정의 무인화실현에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던 조종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함으로써 프로그램등록증을 수여받았으며 관록 있는 과학자들로부터 앞날이 기대되는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것은 그의 앞날을 결정한 중요한 계기로도 되었다.

사실 부모들은 그가 자기들처럼 교육자가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과학의 미지의 세계를 파헤쳤을 때의 남다른 기쁨을 체험한 그는 단연코 과학자가 될것을 결심하였다.

높은 향학열을 지닌 그는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분발하였다. 대학생으로서 프로그램분야의 지식을 다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 실장 길성준

지면서 과학연구사업을 함께 내민다는것이 쉽지 않았지만 과학자가 되려는 그의 지향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그였기에 어느 한 기계공장의 CNC빔 및 나사연마반자동프로그램생성체계를 개발한데 이어 여러건의 과학기술적문제들도 해결할수 있었다.

이 나날 그는 과학기술성과도 입증, 프로그램등록증 등 23개의 각종 증서와 함께 대학생과 학탐구상을 수여받았다.

그후 소망대로 국가과학원 동력기계연구소의 연구사로 배치받은 그는 프로그램공학과 기계공학의 높은 경지를 개척하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었다.

연구사업을 해도 결실을 볼 때까지 파고드는 그의 탐구기풍은 삼천메기공장의 현대화실현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당시 공장은 먹이공급에서 자동화를 실현하지 못하고있었다. 현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난 그는 공기압력을 리용하여 먹이공급의 자동화를 실현할것을 결심하고 먹이이송과 먹이뿌리기, 먹이떨구기 등 여러가지 작업과제를 원활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길성준

게 수행할수 있는 능률적인 먹이공급설비의 설계와 제작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짧은 기간에 해결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송풍식먹이공급차는 국가발명으로 등록되었다.

롱강식재가공공장의 생산공정현대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맡았을 때에도 그는 해박한 지식과 기발한 착상으로 판석불길다듬기, 전동로라콘베아를 비롯한 선진수준의 설비들을 설계제작하여 생산공정의 현대화, 자동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감속기를 일체화한 SR전동기와 통줄임생산용밀봉물건조기 등 많은 기계설비들을 설계제작하여 신포물고기통줄임공장, 평양대성김가공공장,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현대화실현에 이바지하였다.

지금까지 발명증서, 과학기술성과도입증, 프로그램등록증 등 과학연구과정에 길성준실장이 받은 각종 증서만 해도 60여개나 된다.

실천력이 강한 실력가, 무서운 정열가, 전도유망한 과학자로 연구소의 인정을 받고있는 그는 오늘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의 주로를 힘차게 달리고있다.

길성준이 연구한 동력설비들의 일부



# 그라펜의 응용범위를 넓혀가는 사람들



그라펜은 그 응용분야가 방대할뿐 아니라 오늘날 나노재료를 상징하는 21세기 기적의 재료로 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그라펜의 대량제조연구와 응용기술개발에 저저마다 뛰어 들고있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물리화학연구소에서 그라펜을 리용한 새로운 먼적외선복사가열기술을 개발하고 현실에 성과적으로 도입하고있다.

물리화학연구소 소장 박사 부교수 리진천의 말에 의하면 연구소에서 개발한 먼적외선복사가열기술은 전도성그라펜에 의거하여 먼적외선을 복사할수 있는 발열칠감을 제조하고 그것으로 먼적외선복사체를 제작함으로써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가열효과를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한다.

먼적외선복사가열기술을 세계적인 추세와 조국의 실정에 맞게 보다 발전시킬 목표를 내세운 연구사들은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라펜제조연구에 달라붙었다. 문헌연구를 통해 조국에 풍부한 흑연을 그라펜의 원료로 선정한 그들은 새로운 제조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하나 첨단재료제조연구는 결코 쉽지 않았다. 제일 난문제는 원료로 선정한 천연흑연이 화학적으로 대단히 안정하여 적은 량의 그라펜을 제조하는데도 많은 량의 산과 산화제가 리용되었고 이것들은 반응과정에 산화성과 폭발성이 강한 유해물질들을 형성하는 등 많은 위험성을 안고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첨단연구성과로 조국의 발전을 추동



그라펜에 대한 강의를 하고있는 리진천(가운데)



그라펜의 리용범위를 넓혀가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는 연구사들

해가려는 연구사들의 탐구자세는 추호의 동요도 없었다. 실패의 쓴맛도 보았고 극복하기 어려운 나날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애로와 난관을 딛고 일어섰다. 반응조건을 전면적으로 따져보고 위험인자들을 제거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는 낮과 밤을 이어가며 계속되였다. 2년간의 연구끝에 그들은 마침내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전도성이 높은 소층그라펜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라펜연구에서 앞선 자리에 있다고 자부하고있는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은 이곳 연구소에서 제조한 그라펜견본을 보고서는 《정말 조선에서 만든 견본이 옳은가? 더 많이 보내여주기 바란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소층그라펜의 제조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한 연구사들은 그에 토대하여 얼마후에는 복사성능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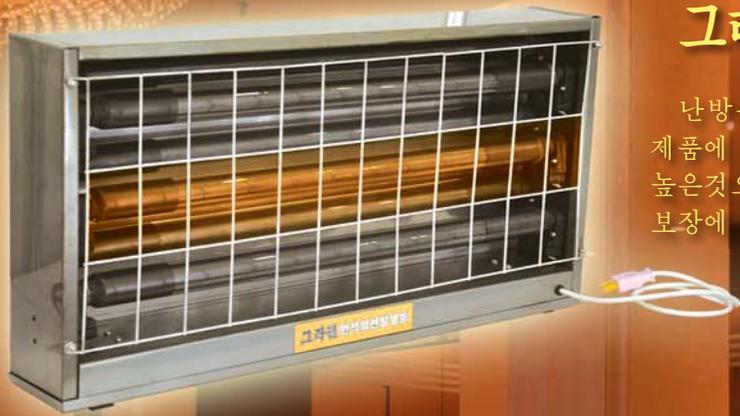
일수 있는 여러 물질을 첨가한 그라펜나노복합재료칠감을 내놓았으며 편이어 여러가지 류형의 먼적외선복사체들을 개발하였다.

현실에서 그 실용적가치가 뚜렷이 검증된 전도성그라펜을 리용한 먼적외선복사체는 먼적외선복사율이 매우 높으면서도 열 및 기계적충격에 매우 안정한것이 특징이다. 모든 특성지표들이 선진수준에 도달된 먼적외선복사체들은 나크롬선을 비롯한 금속가열선을 리용할 때보다 훨씬 적은 전기를 리용하면서도 발열면온도를 40°C-250°C구간에서 임의로 조절할수 있고 원가가 낮고 수명이 긴것으로 하여 그 수요자는 날로 늘어나고있다.

성과에 자만을 모르는 연구사들은 그라펜의 응용범위를 보다 넓혀 최근에는 고품질그라펜으로 성능이 높은 연축전지를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과학적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라펜을 리용한 새로운 먼적외선복사가열기술개발과 그 응용도입, 이것은 첨단과학기술로 조국의 발전을 추동하려는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 물리화학연구소 연구사들의 불같은 지향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다.

글 김성영, 사진 김성철



## 그라펜면적외선발열등

난방용면적외선발열설비로서 일반전열 제품에 비하여 소비전력이 작고 전열효율이 높은것으로 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의 난방 보장에 효과적이다.

### 기술적특성

사용전압: AC 220V

소비전력: 1단 400W, 2단 800W

발열온도: 200~250℃



## 기체플라즈마공기소독기

실내환경에 대한 공기소독을 진행하여 전염병의 감염과 전파를 억제하는 설비이다.

### 기술적특성

사용전압: AC 220V, DC 24V, 12V

전원출력: 5~150W

교압세기: DC 4~8kV

# 다양하고 특색있는 관광지구로



- 국가관광총국 처장 오현과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오늘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이에 따라 관광업도 더욱 발전하고있다. 그러한 관광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처장: 관광은 그 목적과 활동내용, 조직형식과 관광자원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은 목적과 활동내용에 따라 탐승관광, 유람관광, 견학관광, 체육관광, 휴식관광, 치료관광, 회의관광, 교육관광, 음식맛보기관광, 물건사기관광 등으로, 조직형식에 따라 단체관광과 개별관광으로, 관광자원에 따라 산악관광, 해안관광, 온천관광, 생태관광, 도시관광, 농촌관광, 해저관광, 우주관광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있다.

관광의 유형은 관광객들의 문화정서적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그 수준이 높아지고있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들이 개발되는데 따라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렇게 관광은 자기의 발전 단계를 거쳐오는 과정에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지고 그에 맞게 관광봉사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룩되어 세계적으로 관광객수와 관광봉사수입액이 매해 빠른 속도로 장성하고있다. 한편 관광활동이 대중화되고 관광업은 경제구조에서 독자적인 산업분야로 발전하고있다.

기자: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은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활발히 벌어지고있다고 본다.

처장: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등 주요명산들뿐 아니라 송도원과 몽금포, 마전을 비롯한 조선동서해의 백사장들과 기묘묘한 천태만상의 절경을 자랑하는 룡문대굴과 송암동굴, 원산지구의 울림폭포 등 수많은 관광자원들을 개발하여 나라의 관광업발전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최근년간에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종합적인 체육문화휴식기지, 건강치료봉사기지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관광 및 체육문화휴식기지가 새롭게 꾸려져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머지않아 해안도시로서 자연지리적으로 경치가 아름다운 원산시의 명사십리에 우리 나라의 제일유명관광지로 세계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될 국보급의 해양공원인 갈마해안관광지가 준공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곳은 나라의 자랑, 인파십리로 매력적인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더욱 적극화되고있지 않는가.

처장: 그렇다.

우선 삼자연시를 우리 나라

북부산간도시의 전형으로, 특색있는 복합형산악관광지구, 사계절산악관광지구로 개발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충족시키고 국제관광도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산지면적이 전 령토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산악관광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강구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의 동서 두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금강산과 칠보산, 마전, 금야, 리원, 염분진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조선동해명승지들이 많은 조건에서 앞으로 관광업분야에서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집중하기 위한 사업과 해안관광자원으로서 체육형관광자원과 휴식위주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관광자원을 특색있게 활용하기 위한 전망적인 대책을 현실성있게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다.

가까운 앞날에 변혁되게 될 우리 나라의 특색있고 현대적인 관광지구들은 독특한 매력을 느낄수 있는 관광지로, 한번 오면 누구나 떠나기 아쉬워하고 다시 찾고싶은 정다운 곳으로 될것이다.

\* \* \*

# 두각을 나타내고있는

# 월미도축구단



최근년간 월미도축구단은 국내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한것은 월미도축구단 여자 축구선수들이 최근 몇년어간에 국내 1부류여자축구경기들에서 여러 차례 순위권에 입선하여 무시할수 없는 강팀으로 등장하였기때문이다.

지난해 9월에 진행된 국제 축구련맹 2024년 20살미만 여자 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리 팀을 우승으로 이끈 책임감독과 3명의 선수들도 이 축구단에서 배출되었다.

1984년 2월에 조직된 월미도축구단에는 남, 녀 축구선수들이 조별로 망라되어있다. 그중에서도 녀자팀의 실력은 국내 1부류축구팀들가운데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녀자축구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은 리성호감독의 실력을 떠

나 생각할수 없다. 2014년에 이 축구단의 녀자 1조감독으로 배치된 후 리성호는 선수들의 단합을 실현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이에 대해 리성호감독은 《축구는 집단경기인것만큼 선수들이 감독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매 선수들의 성격과 취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그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팀의 전술체계를 완성하는데 지혜와 정열을 바치였다.

그는 일단 훈련에 진입하면 모든 선수들이 감독의 전술적 의도에 맞게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엄격하게 요구하였다. 그의 노력에 의해 모든 선수들은 팀의 전술방안에 맞게 자기 위치에서 최대의 기술을 발휘

하면서 득점의 묘리들을 하나하나 터득해나갈수 있었다.

리성호감독은 경기때마다 상대팀의 전술을 먼저 꿰들고 그에 맞는 전술을 제때에 세워 형세를 역전시키는 묘기를 가지고있다.

지난해 3월 2024년 아시아 축구련맹 20살미만 녀자아시아 컵경기대회에서 높은 특기기술로 최고득점을 이루어냄으로써 2023년 아시아축구련맹 최우수청년녀자선수상을 쟁취한 주장 채은영선수 그리고 공격수 신향, 최종방어수 한홍련은 그가 키운 선수들이다.

채은영선수는 《우리가 1위까지 올라오기는 정말 험치 않았다. 고수하기는 더 힘들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배가의 노력으로 우승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였다.

녀자축구선수들의 성과에 상

응하게 남자축구선수들도 우승을 마련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고있다.

남자 1조책임감독 리광혁을 비롯한 감독들은 세계축구발전 추세를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팀의 특성에 맞는 전술체계를 확립하고 특기선수들을 키워내고있다.

월미도축구단 남자축구선수들은 평균나이가 다른 팀 선수들에 비해 어리고 경기경험도 부족하지만 기초기술이 높고 공격속도가 빠르며 선수들 호상간 협동이 매우 짜인것이 특징이다.

국내 축구관련자들은 월미도 축구단 남자축구선수들도 가까운 앞날에 강팀의 지위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글 러해, 사진 김평



# 가족중창단

평양시 형제산구역 석전동 7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정만인 로인의 가정은 가족중창단으로 알려져있다.

정만인로인과 그의 안해 김영애로인은 70살이 지났지만 건설장들과 사회주의전야에 나가 건설장들과 농장원들에게 진정을 바쳐가고있으며 4명의 딸들과 손녀들도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다.

몇해전부터 그들은 가족중창단을 무어 수도와 지방의 여러 건설장들에 나가 예술활동도 벌리고있다.

정만인로인과 딸, 사위들이 모두 제대군인이라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 조국보위를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한 이 가정의 가풍은 정만인



화성지구 3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을 하고있는 정만인, 김영애로인과 그의 딸들과 사위

로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나라가 있고야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자각을 안고 40여년간 군사복무의 길을 걸어왔다. 그런 남편을 위해 김영애녀성은 자기의 진정을 다 바

쳤으며 자식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도록 가정교양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하기에 언제 한번 자식들에게 따뜻한 정을 바칠새 없이 늘 바쁘게 살아온 아버지였지만 군복입은 그 모습은 딸들의 가슴속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하여 아버지처럼 자기들도 군복을 입으리라 결심한 딸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다.

그들부부는 딸들이 제대된후에도 조국보위의 길을 변함없이 가도록 하기 위해 군관의 안해가 되게 하였으며 나라에 보탬을 주는 일들을 찾아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리고 자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아글라클 노력하였다.

부모들의 그러한 모습은 자식들을 감동시켰으며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게 하였다. 하여 만딸과 둘

째딸은 구역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게 되었으며 셋째와 막내도 여러가지 지원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지원사업은 그때부터 수십년간 변함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딸들과 함께 화성거리건설장에 찾아가 지원물자를 넘겨준 김영애로인이 건설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데 그들은 만류하며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하였다. 그날 영애로인은 가족성원모두가 예술활동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제안은 온 가족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며칠후부터는 가족예술공연을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사실 처음 해보는 일이고 더우기 예술적조예가 깊지 못하다

나니 그들에게는 애로도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도와주고 이끌면서 악기를 배우고 기량훈련을 열심히 하였다.

한달후 공연준비를 끝낸 그들은 화성거리건설장에서 첫 공연을 하였으며 건설자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게 되었다. 그후 그들의 공연길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해 그들은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지방발전 20×10 정책》실현을 위해 들끓는 성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에 나가 공연활동으로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다.

정만인, 김영애로인의 가족중창단의 소박한 공연활동은 건설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글 강은순  
사진 허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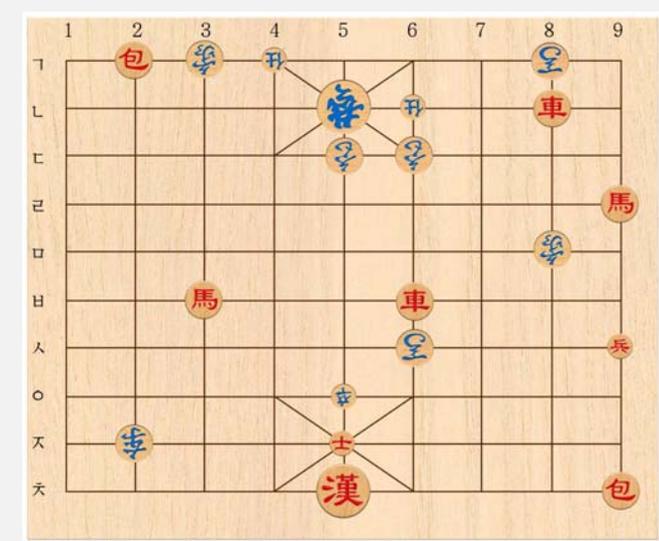
## 장기수풀이 (26)

**장기격언**  
면포는 궁의 승인을 받으렸다

흔히 면포를 옮기게 되면 자장이 걸리는 실례가 많고 혹은 상대방이 불의에 궁성을 공격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장기수풀이 (25)에 대한 답**

ㄷ6포♁6, ㄱ6사♁5, ㄱ5말♁6, ㄱ4포♁6, ㄱ7차♁6, ㄱ5사♁6, ㄱ6말♁4, ㄱ6사♁5, ㄱ4말♁6, ㄱ5사♁6, ㄱ7병♁6,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낼 지원물자를 마련하고있는 정만인의 가족



# 늘어나는 가 지 수, 향상되는 질

지난해 조국에서는 많은 전시회들이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정주부들의 특별한 관심을 끈 전시회가 있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청춘관에서 진행된 전국밀가루음식전시회이다. 전시회는 처음부터 가정주부들로 흥성이었다.

평양시와 각 도의 급양봉사단위에서는 식생활에서 주식으로 널리 리용할수 있는 30여종에 수백가지의 밀가루음식과 가공품들, 그에 잘 어울리는 요리와 음료들을 전시하였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밀가루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요리사들과 가정주부들이 직접 출연하여 보여준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었다.

옥류관, 청류관, 평양면옥을 비롯하여 이름난 급양봉사단위에서 출품한 말이찜빵, 짜장면, 룡두소단지짐, 새우소꽃만두를 비롯한 여러가지 밀가루가공품들이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마도베짜, 밀지집사과접튀기, 스빠게띠 등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내놓은 평양고려호텔, 보통강려관, 해방산호텔전

시대도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어떤 단위의 전시대에서는 주식으로 널리 리용할수 있는 수십가지의 밀가루가공품들을 내놓아 편일 조리비방을 물어보는 참관자들로 흥성거렸다.

각 도들에서도 자기 지방에서 농사지은 밀로 가공한 밀가루음식들을 내놓았다. 특히 황해남도에서 출품한 썩문양찜빵, 초콜레트말이찜빵, 칼제비국 등이 특색을 띠었다. 신천군인민위원회 일군인 오명금은 이번에 내놓은 제품들이 군에서 손꼽히는 요리사들이 만든것이

라고 하면서 자기 군에서는 해마다 품평회를 진행하여 가정주부들이 다양하게 밀가루음식을 만들도록 하고있다고 하였다.

우수한 요리사들의 시범출연도 인기를 끌었다. 요리사들은 요리를 하면서 참관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밀가루의 량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재료의 비율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해주었다. 수첩을 들고 열심히 적어가는 주부들이 있는가 하면 완성된 요리를 맛보는 녀성들도 있었다.

청류관 요리사 김미향이 직접 밀가루설기를 만드는 모습을 참관자들이 어깨성을 쌓고 바라보았다. 김미향요리사는 질문의 소나기를 퍼붓는 녀성들에게 밀가루설기를 맛보이며 백미가루와 밀가루의 배합비율도 알려주면서 가정주부들이 지성을 고일수록 맛있고 영양가높은 다양한 밀가루음식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할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주부들을 대표하여 시범출연한 대동강구역 동문2동 5인민반 김인화녀성은 가정들에서 흔히 해먹는 칼제비국을 맛있게 요리하여 호평을 받았다.

조선요리협회 중앙위원회 일군인 조영의 말에 의하면 이번 전시회는 가까운 시일안에 밀가루음식과 가공품들의 가 지 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여 우리 인민

들의 식생활구조를 전환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밀풍작과 함께 밀가루음식전시회도 더 활기를 띠고 우리의 음식문화도 보다 문명하게 발전되어간다고 말하였다.

가정주부들은 다음번 전시회를 기다리고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2024년 11월 수도 평양의 청춘관에서 진행된 전국밀가루음식전시회는 밀가루음식들의 가공기술과 좋은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조국의 음식문화발전을 추동한 계기로 되었다.

# 생활의 향기와 정서를 더해 주는 차문화



차는 기호음료이면서도 건강음료이며 약재인 것으로 하여 커피, 코코아와 함께 세계3대음료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얼마전 저는 조국을 방문한 한 재중동포로부터 차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의 유명한 차를 나에게 선물하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다고 하면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성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에도 인민들이 즐겨 마시는 은정차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생활의 향기와 정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조국의 차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동포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줄 나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귀를 강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준 동포의 모습을 오늘도 떠올리며 우리는 이번호 《민족의 향기》란에 조국의 차문화에 대해 실으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력사속의 차문화를 보기로 합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맛과 향기, 효능이 높은 약용식물들을 재료로 하여 여러가지 차를 만들어 리용하여왔습니다.

삼국시기에 벌써 여러곳에서 차나무들이 재배 보급되었는데 《삼국사기》를 비롯한 력사책들에는 그 시기 사람들이 차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무덤벽화에 차를 마시는 그림이 있을뿐 아니라 설총의 《꽃왕이야기》에도 차에 대하여 서술되었습니다. 이러한것들은 우리 민족의 차문화의 력사를 연구하는데서 매우 가치있는 자료로



되고있습니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우리 민족의 차문화는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그후 오랜 세월 면면히 계승되어오면서 하나의 풍습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싶다싶이 차나무는 북위 36° 이북 지역에서는 재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황해남도 강령군과 강원도 고성군에서 많은 량의 차잎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정차》라고 부르고있습니다.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데는 우리 나라에서도 차를 자체로 생산하여 인민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마시도록 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사랑이 깃들어있습니다.

평양시의 락랑구역에는 맛과 향기가 독특한 여러가지 차음료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은정차음료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는 은정차집들이 꾸려져있습니다. 그가운데서도 2012년 4월에 준공된 창전거리의 은정차집은 나라의 차문화보급기지의 하나로 손꼽히고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해남도 강령군의 은정차재배원에서 따들인 차잎으로 가공한 록차와 홍차, 철관음차, 보리차, 메밀차, 강냉이수염차를 봉사하고있습니다.

경리 김명희의 말에 의하면 차를 오래동안 마시는 과정에 사람들속에서는 맛좋은 차는 우선 차잎이 좋아야 하고 차잎을 우려내는 음료의 수질이 좋아야 하며 차잔이 또한 그에 알맞는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그로부터 이 3가지가 차의 구성요소로 되고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문화라고 할 때에는 차잎생산과

가열건조 및 보관, 차끓이기용물선택과 끓일 때의 온도 및 시간조절, 차잔만들기와 차마시기풍습 등 차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을 통털어 이르는 말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가공된 차잎을 차잔에 담아 우려서 차잔을 감상하면서 마시는것 다시말하여 차를 마시는 과정 그자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은정차는 차잔에 차잎 3g을 넣고 85°C이상 되는 물을 부어 5분정도 지난 다음 마십니다. 처음에는 차를 절반정도 마신 후 뜨거운 물을 더 부어 3분정도 지난 다음 마십니다. 차의 유효성분은 첫번째에는 50%, 두번째에는 30%, 세번째에는 10% 정도 우러나옵니다.

은정차재배원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래운 차잎을 가공한 록차, 홍차, 철관음차와 같은 차제품은 조국인민들뿐 아니라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속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조국의 차문화는 이렇듯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글 연옥, 사진 리광성, 김강무





# 만 선 회

음식감(10명 분)  
 잉어 2마리(3kg), 문어 1마리,  
 쏘가리 2마리, 털게 5마리, 왕  
 새우 1kg, 서해대합 2kg, 밥  
 조개 2kg, 새우 2kg, 파 1kg,  
 레몬 5알, 닭알 3알, 메추리알  
 20알, 도마도 4알, 오이 100g,  
 고수 200g, 햄 200g, 소금 8g,  
 후추 3g, 초고추장 150g, 무  
 우채 400g



## 만드는 방법

- ① 잉어 1마리는 껍질을 벗기고 0.6cm의 편으로 썬다. 쏘가리는 껍질을 벗기고 편을 낸 다음 소금, 후추로 간을 한 양념물에 살짝 삶아낸다. 털게다리와 대가리를 떼낸 왕새우와 새우는 간을 한 양념물에 살짝 삶아 껍질을 벗긴다. 서해대합과 밥조개는 살짝 데친 다음 까서 내장을 없애고 깨끗이 한다. 문어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살짝 데친다.
- ② 쏘가리살편우에 0.2cm의 삶은 메추리알편, 고수잎, 실고추로 장식한다.
- ③ 배모양으로 조각한 얼음그릇에 무우채를 깔고 통마리로 된 잉어를 놓은 다음 잉어회를 보기 좋게 담는다. 주위에 문어, 쏘가리살편, 서해대합, 밥조개, 털게다리살, 새우살을 구색이 맞게 담은 다음 장식하고 0~1°C의 랭장고에 잠깐 보관했다가 낸다.
- ④ 다진 도마도, 오이, 파, 마늘, 삶은 닭알흰자위와 레몬즙을 두고 만든 쏘스와 초고추장은 따로 담아낸다.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의 문학작품중에서



# 과거의 의미

력사에는 아름다운 추억만이 있는것이 아님을 오늘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우리 민족을 통채로 괴의 바다, 눈물의 바다에 잠근 반인륜적 범죄 그리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만행들은 나의 가슴을 찢어질듯 아프게 하였다.

흔히 사람들은 가장 흉악하고 포악한 야수를 승냥이에 비기곤 하지만 내가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목격한 력사적사실들은 그 흉악성에 있어서 승냥이를 능가하는것이였다.

차마 상상할수 없고 오늘의 일기에도 옮기기 섬쩍한 만행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조선대학교에서 력사학을 전공하고있는 나는 수천년을 내려오는 인류사의 갈피에 숭고하고 영웅적이며 아름다운것만이 기록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이 땅 누구나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 력사는 자기의 폐지에 이렇듯 크나큰 고통과 아픔도 남겨놓았으니 기억하고싶지 않은, 들추고싶지 않은 그 상처를 기어이 되살려야만 하는 리유는 무엇인가.

100여년전 일본의 간토히방에서는 전대미문의 조선인대학살이 있었다.

조선사람의 목을 베어 사람들이 오가는 길복판에 매달아놓고는 미친듯이 웃어대고 나무기둥에 산 사람을 묶어놓고는 돌탕쳐죽이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내동댕이치고...

재일동포모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이 사건은 다만 지난날의 과거가 아니다.

한세기전에는 일제의 발굽아래에서, 70여년전에는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조부모님들이 겪었던 가슴아픈 이 력사.

이것을 또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악의 무리가 아직도 지구상에 남아있다.

바로 그 악의 무리속에서 우리 재일동포들이

살고있다. 지난 세기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쭉운 그 숙적의 땅에서 우리 동포들이 살고있다.

무섭다고 외면하고 끔찍하다고 에돌아갈 력사가 아니기에,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는 아픔이기에 조국을 찾는 새세대 해외동포들의 발걸음이 여기 계급교양관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것 아니겠는가.

그렇다.

과거는 지나간 사실이 아니라 오늘을 깨우치는 현실이다.

우리의 가슴에 다시는 수난의 칼이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랑하는 동무들의 얼굴에 다시는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하고 그 조국의 힘을 강하게 키워야 함을 깨우쳐주고있는 가장 힘있는 현실이다.

탄압에도 회유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조국만을 우러르며 애국애족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동포사회라는 대지에 깊이깊이 뿌리내릴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바로 력사이다.

우리의 력사속에 배여있는 민족의식, 계급의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지닌것이 바로 나와 같은 재일조선인력사자들일것이다.

나는 지나간 시대에 우리 선대들이 겪었던 아픔의 기억을 후배들에게,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생생히 알려줄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닌 민족적자존심, 이역땅에서 떨쳐가는 조선사람의 영예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높은것인가를 소중히 간직하고 대대손손 그 영예를 빛내어나가도록 이끌어줄것이다.

과거의 의미와 력사학자의 존재감을 더욱 뚜렷이, 새롭게 간직하며 나는 중앙계급교양관을 나섰다.

총련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력사지리학과 4학년 민재동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국방문

# 한생의 추억으로

-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 -

《며칠 후에 조국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서운합니다. 이번에 돌아가서 교단에서 계 되면 후배들을 훌륭히 키워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조국을 방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조국을 방문하였던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학생조국방문단 성원이다. 《저는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전위거리에서



강동종합온실농장에서



평양대극장에서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도 관람하였다.

들이 한 말이다.

방문단성원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국방문의 나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나날인 동시에 배움의 나날이었다.

그들은 최근년간 새로 일떠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돌아보았다. 청년들의 위훈이 깃든 전위거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고 화성거리, 림흥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에 보금자리를 편 인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교원대학, 평양외국어대학에서 다양한 실습을 진행하면서 지식을 공고히 하기도



동명왕릉에서

## 졸업후 나의 목표



조국방문의 나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루하루의 일정이 다 즐거웠고 의의 있었다. 특히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보낸 시간은 참으로 유쾌했다. 나는 궁전의 여러 소조실들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워가는 학생들을 보았다. 원래 무용을 좋아해서인지 조선무용소조실에서 조선장단에 맞춰 춤동작을 펼쳐보이는 학생들을 보니 정말 부러웠다.

조국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궁전, 야영소들이 명당 자리들에 일떠섰다.

그리고보면 조국의 학생들은 행복둥이들이다. 그렇다고 조국의 학생들은 나라에서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아안기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장에 깃든 당의 사랑과 배려를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청년들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달려나가 청춘송가를 엮어나가고 있다.

청년들의 땀이 깃든 창조물들이 참으로 많다.

나도 이번에 가보았지만 전위거리가 바로 그 대표작이다.

나와 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웅장한 거리를 일떠세웠다는게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나는 이들의 모범을 따라 이제 졸업하면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이다.

총련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학생 조미구

개신청년공원유희장에서



하였다.

동명왕릉에서 고구려의 력사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었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개신청년공원유희장에 다양한 일화들을 남겨놓기도 하였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의 배구소조원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는 양복을 입은채로 훈련장에 뛰어 들어 멋진 강타장면을 펼쳐보인 총련 조선대학교 리공학부 리종명, 조태환학생들, 개신청년공원유희장에서 전기자동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던 리령아, 김윤화학생들...

그 모습을 추억에 남기려고 사진기샤타를 련속 누르던 조선대학교의 선생님들.

정말 하루하루가 잊지 못할 나날이었다.

문학력사학부의 학생들은 자기들이 느낀것을 문예작품에 담아 노래하였다.

문학력사학부 학부장 하창국을 비롯한 조선대학교 교육자들은 조국체류기간 학생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김슬기, 사진 김영호

## 총련의 역군으로 준비하겠다



지난해 10월 나는 총련 조선대학교 졸업학년 학생조국방문단 성원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

물론 조국방문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나의 눈에 안겨든 평양은 황

홀하였다.

어디 가나 새 거리들이 일떠서고 건축물마다 현대미가 진하게 풍기고있었다.

약동하는 조국의 모습은 이국에서 사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따사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었다.

나의 사촌형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만수대창작

사에서 미술가로 일하는 김규권형은 이름난 화가가 되었다.

어떻게 되어 그렇게 성공했는가고 묻는 나의 물음에 형님은 조국에서는 누구나 무료교육을 받으며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리고보면 나도 해마다 조국에서 보내주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조국에서 보내주는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받아안을 때면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나는 앞으로 조국방문의 나날을 잊지 않고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안아오는 과학기술인재로 자라나기 위하여 더 힘껏 노력하겠다.

총련 조선대학교 리공학부 학생 김영규



정현희

# 관록있는 여성바이올린 연주가

정현희라는 씨앗이 만일 저 일본땅에 뿌려졌다면 음악가는커녕 꽃망울도 피워 보지 못하고 시들어버렸을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있기에 나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행복의 절정에 사는 연주가로 될 수 있었다.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자들속에는 지난 20여년 간 나라의 교향악발전에 적극 이바지해온 여성바이올린연주가 정현희도 있다.

얼마전 그는 국립교향악단음악회에서 바이올린독주곡 《시향가》를 연주하여 관중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럴 때마다 현희는 자기의 음악적재능을 찾아주고 꽃피워준 나라의 고마움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곤 한다.

사실 그를 낳은 부모들도 처음에는 딸에게 음악적재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7살때 가족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 아버지 정휘영, 조선대학교에 다니던 시기 동무들과 귀국선에 올랐던 어머니 김영란은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졸업후에는 지식으로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비파유치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민홍인민학교(당시)시절에는 학생소년들의 예술축전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고 평양음악예술학원(당시)에 편입하였다. 14살때에는 국내예술단체들의 바이올린연주가들과 어깨를 겨루는 2.16예술상개인경연에 처음 참가하여 순위권에 입선함으로써 심사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일본에 사는 그의 외할아버지는 조국에 올 때

마다 손녀의 바이올린연주를 들곤 하였는데 언제인가 현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일본땅은 물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돈한푼 내지 않고 음악공부한다는걸 상상도 못한다. 조국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음악신동이라고 해도 이토록 훌륭히 자라날수 있었겠니?》

그때는 외할아버지의 이 말의 의미를 다는 리해하지 못했지만 현희는 음악공부를 더 잘해나가리라 다짐하였다고 한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에서 공부하던 1997년 어느날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국립교향악단음악회에서 독주곡을 연주하게 되었다.

그는 해방(1945. 8. 15.)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첫 연주로 창립을 선포한 우리 나라의 원로예술단체인 국립교향악단의 관록있는 예술인들과 바이올린독주를 위한 관현악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합니다》를 연주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연주수준을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의 기량은 날이 갈수록 몰라보게 높아만 갔다.

그 나날 정현희는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가



신진연주자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되었고 대학졸업후에는 국립교향악단의 여성바이올린연주가로, 2.16예술상수상자로 성장하였다.

그때로부터 5년후 현희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어느한 음악회에서 독주곡을 연주하여 그이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였다.

그이께서 현희를 몸가 가까이 부르시여 사랑의 축배잔도 짙어주신 바로 그날밤 현희만이 아닌 그의 온 식구는 나날이 뜨거워지는 조국의 사랑이 사무쳐와 잠들지 못하였다.

그는 2018년 스위스에서 진행된 국립교향악단 소련대 공연에서 무반주독주곡 《아리랑》과 세계명곡들을 높은 수준에서 연주하여 절찬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공연들에서 주체예술의 발전면모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지금 정현희는 더 높은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 기량훈련에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고있으며 신진연주자들의 기량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각별한 힘을 넣고있다.

글 연옥, 사진 김성철

중요기념일을 맞으며 진행된 국립교향악단음악회에 참가한 정현희(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공연을 마치고 가족과 함께

# 삼일포



삼일포는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호수이다.

면적은 0.78km<sup>2</sup>이고 둘레는 6.5km, 길이는 2km이다. 너비는 0.4km이다.

삼일포는 원래 조선동해의 작은 만이었던 곳이 남강어구의 삼각주가 바다쪽으로 늘어나면서 만어구를 막아 이루어진 바다자리호수이다.

우리 나라의 바다자리호수 가운데서 제일 깊은 삼일포는 예로부터 명승지로 알려졌다.

옛날에 어느 왕이 여기에 와서 하루동안 놀려고 하였지만

경치가 하도 좋아 3일동안 놀고갔다고 하여 삼일포라고 불렀다고 한다.

삼일포는 호수경치에서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호수는 두리에 수십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있으며 그안에 수정같이 맑은 호수물이 잔잔하게 고여 있다. 그리고 그우에 떠있는듯한 섬들과 소나무숲, 참대숲이 하나로 잘 어울려 한폭의 그림과도 같다.

산우에서 보면 바다가의 호

수로 보이나 호수안에서 보면 심산속의 호수와 같은 느낌을 준다.

삼일포에서 제일 큰 섬은 와우도이다. 옛날에는 몇그루의 해묵은 소나무가 서있다고 하여 송도라고 불리웠으나 그생김새가 마치 소가 누워있는듯하다고 하여 와우도로 불리우게 되었다.

오늘 삼일포는 인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휴식터로 되고 있다.

글 김일봉, 사진 김혁주

고향소식

# 애국명장의

# 고향을 찾아서

남포시 룡강군 옥도리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시기 왜적을 쳐부시는데서 큰 공로를 세운 애국명장 김응서의 집과 묘가 있는 곳이다. 지금은 이곳이 룡강민속공원으로 꾸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던 우리는 얼마전 이 고장을 찾았다. 옥도리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살고있는 백동명을 비롯한 적지 않은 동포들이 나서자란 고향이기도 하다.

우리를 태운 취재차가 나라를 지키는 요새였던 황룡산성을 지나니 룡강민속공원의 자태가 시야에 안겨들었다.

이곳에서 만난 리은별 민속공원관리소 소장은 우리에게 공원은 김응서의 집과 묘, 역사유적들과 유물들이 있는 역사교양구와 민속촌, 민속유희구로 되어있다고 한 일군을 소개해주었다.

알고보니 그는 민속공원에서 사업하는 김응서의 15대자손 김은용이었다.

김은용은 마을에는 자기만이 아니라 김응서의



룡강민속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는 근로자들

자손들이 많으며 우리를 옛 모습 그대로인 김응서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방문을 여니 김응서의 화상이 보였고 그앞에 있는 탁자에는 그가 사용하던 호패며 벼루 등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옆방의 벽면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의 목을 베는 김응서와 그들과와나섰던 계월향을 형상한 조선화작품이 걸려있었고 탁자에는 김응서의 족보, 등경, 향로 등이 있었다.

우리가 유물들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김은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0년에 우리 고장을 찾으신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집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김응서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잘 싸운 애국명장이라고 하시며 집을 잘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그후 국보로 보존관리되어오던 이 집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조치에 의해 민속공원으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있는 김응서의 집과 묘



기자의 요청으로 옛 풍습을 재현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애국명장 김응서와 의병대에 대해 이야기하고나서 김응서의 자손들중에는 애국자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 실례까지 드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력사교양구로 향하였다. 이 구역에는 고조선시기의 비파형단검과 좁은놋단검, 고구려시기의 광개토왕릉비, 고려시기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여러 돌등 등이 있었는데 강사는 그 모든것에 대한 해설을 구체적으로 해주었다.

이어 우리는 당대의 살림집풍속을 보여주는 고구려토호집과 평안도농민의 집, 룡강지방토호집 등이 있는 민속촌에 들어섰는데 첫 순간부터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한것은 많은 참관자들이 민족옷을 입고 옛집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고 한쪽에서는 전통적방법으로 떡을 치고 지짐을 지지며 흥성이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보느라니 그 옛날 집집마다에서 울리던 다듬이질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고 구수한 토장국냄새도 풍겨오는것만 같았다.

우리는 민속유희구에도 들려보았다. 푸른 숲과



호수, 조선식건물들이 있는 이곳의 경치도 좋았지만 정각에 올라 즐겁게 웃으며 경치를 부감하는 사람들, 씨름터와 그네터, 활쏘기터들에서 울려나오는 응원소리, 장기와 윷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로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참관자들의 모습은 이채로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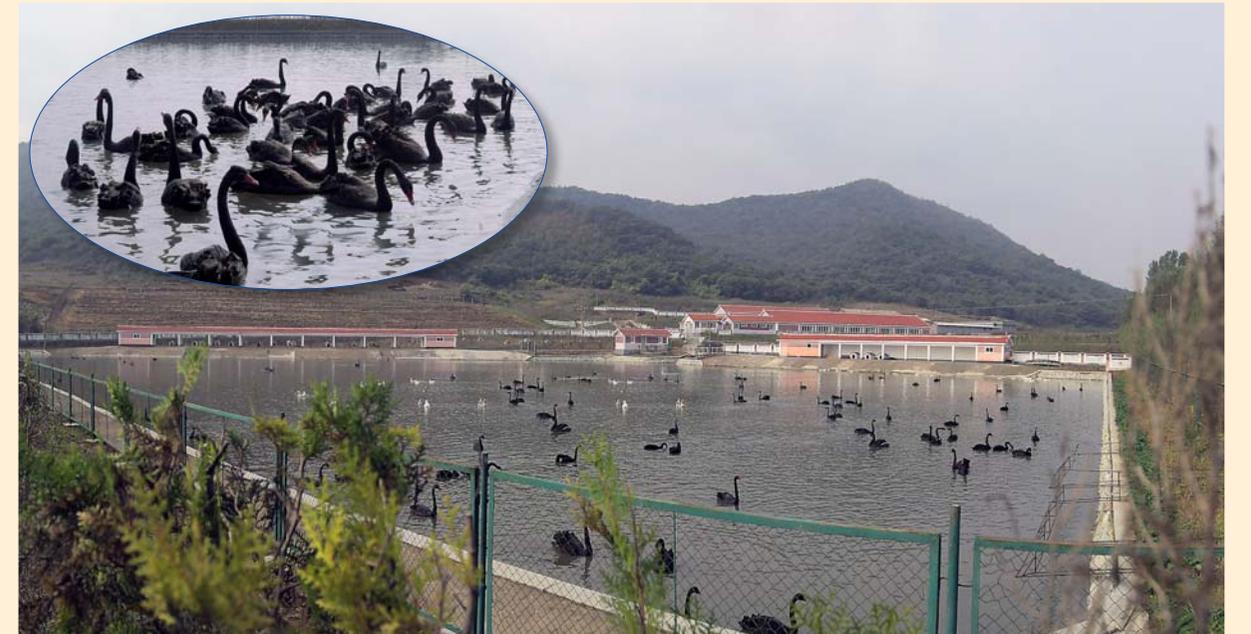
이곳에서 만난 남포시에서 온 한 소학교교원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력사유적, 유물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 인식교양적의의가 크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희천시에서 온 참관자들은 사업상용무로 이곳에 왔다가 들려보았는데 못보면 후회할번하였다고 하면서 돌아볼수록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원을 나선 우리는 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는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건설된 소총살림집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살림집들은 민속공원과 새로 꾸려진 포도술공장, 검은고니분장 종업원들을 위해 나라에서 품들어 지어준 집이었다. 생활상 편리하게 꾸려진 3칸, 4칸짜리 살림집들을 돌아본 우리는 이어 포도술공장과 검은고니분장에도 들리였다.

포도술공장과 검은고니분장은 조업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고있었다.

김응서의 고향에 포도술공장(오른쪽)과 검은고니분장(아래)이 새로 건설되였다.



특히 검은고니분장에서는 과학적인 사육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먹이원천을 최대로 동원리용할뿐 아니라 수의방역토대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많은 검은고니를 길러내고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김응서의 자손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선조의 자취가 어린 고향땅을 더 잘 꾸려갈 자기들의 결심을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자기가 사는 고향산천에 대한 공지와 자랑에 넘쳐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백동명을 비롯한 동포들이 선조들의 태가 묻혀있는 이곳을 찾는다면 감회가 새롭고 느끼는바도 클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옥도리에 대한 취재를 마치였다.

글 강경수, 사진 김성철





조국의 역사유적을 찾아

# 대성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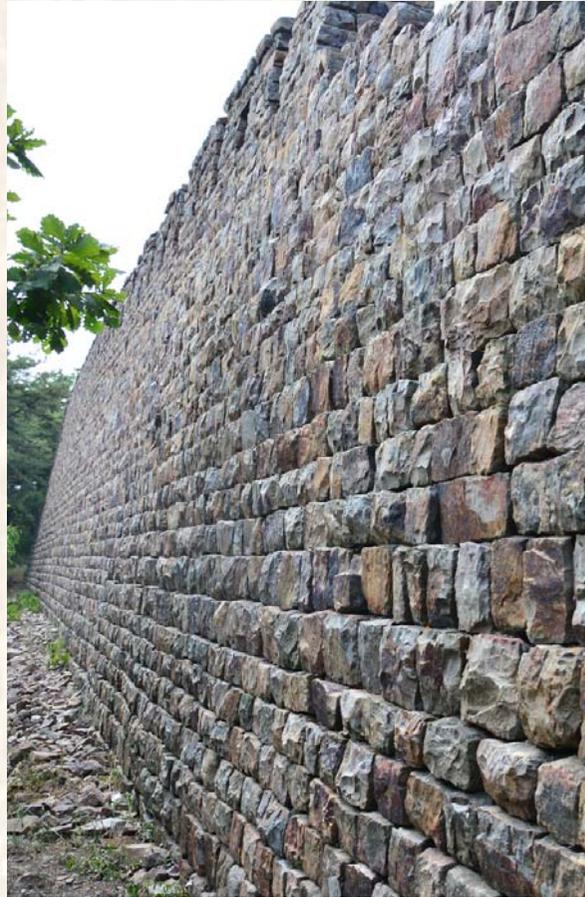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위치하고있는 대성산성은 3세기-5세기에 쌓은 고구려의 산성이다. 둘레가 7 076m, 성벽의 길이가 9 284m인 대성산성은 수많은 고구려산성 가운데서 가장 큰 성의 하나이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왕궁이었던 안학궁성을 보위하는 방위성이었다.

산성은 높이 270m의 울지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소문봉, 울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 봉우리들을 연결하였으며 그안에 2개의 넓고 깊은 골짜기를 끼고있어 당시 많은 사람들과 전투기재 및 물자들을 수용하고 보관할수 있었다.

대성산성은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쌓은 성이다.

성의 북쪽에는 험준한 산줄기들이 첩첩히 잇닿아있고 동쪽과 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남쪽에는 대동강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은 성벽으로 가로막혔다. 남쪽의 골짜기 부분은 겹성을 튼튼히 쌓았다. 하여 대성산성은 적들이 쳐들어오기에는 힘들고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성새였다.



대성산성의 성돌은 대성산과 그 부근의 자연석을 일정한 크기의 4각추모양으로 다듬어 벽돌쌓듯이 서로 어긋물려 일매지게 견고하게 쌓았다.

성벽에는 치를 설치하였다.

대성산성 성벽쌓기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그 기초시설이다.

물이 계속 스며들면 성벽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돌기둥처럼 돌들을 땅속깊이 묻고 그 사이사이에는 공간을 내든가 모래를 채워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기발한 수법을 썼다.

대성산성에는 못이 있으며 성안에서는 고구려기와들과 금동불상, 불경이 들어있던 돌함 등 유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성곽제도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될뿐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민족적공지를 안겨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글 강은순, 사진 김호



대성산성에 있는 못자리의 일부

대성산성 남문



# 강동군과 《홍산전설》

강동군은 평양시의 북동부에 자리잡고있는 군이다.

옛날에는 평양의 동쪽에 있는 고장이라는 뜻에서 강동을 평양동촌이라고 불려왔다.

고려시기인 1136년경 서경(평양)을 6개현으로 나눌 때 강동현을 내왔다. 그러던 것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는 삼동현으로 고쳐부르다가 1482년에 다시 강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강동군은 평안남도에 소속되었다가 1983년 3월 평양시에 편입되었다. 《강동》이란 이름은 대동강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강동군에는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 오늘의 평양에 수도를 정하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조선(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의 무덤(단군릉)이 있다.

뿐만아니라 고조선의 건국자인 단군에 대한 《홍산전설》도 있다.

어느해 봄날 10대의 어린 단군이 마당에서 활쏘기련습을 하고있는데 그것을 본 아버지가 두필의 말에 짐을 싣더니 두명의 군사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어느한 산릉선에 이른 아버지는 말에서 짐을 부리더니 사내대장부가 진짜무술을 익히려면 이런 곳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르고는 두 무사만

남겨놓고 홀로 가버렸다.

그날부터 단군은 두 무사와 함께 부지런히 무술을 연마하여 어느덧 자기를 배워준 무사들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단군은 기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마당으로 들어서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기뻐하기는 고사하고 《산에서 닮은 무술을 이런 집뜰안에서 보여주겠다는거냐? 그래 네가 보기엔 이 집뜰안이 산보다 높고 집뜨락이 들보다 넓어보이느냐? 그것만 보아도 네 뜻이 낮고 건문이 좁다는게 알린다. 당장 돌아가거라.》라고 질책하는것이였다.

그제서야 아들을 장차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높은 뜻을 알게 된 단군은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와 산판을 메주밟듯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무술을 연마하여 천하무적의 장수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때 단군이 얼마나 무술훈련에 열중했는지 산에서는 붉은 먼지가 가라앉을새가 없었으며 풀과 나무들이 자라지 못해 그후에도 오래도록 붉은 산으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김영은



단군릉

# 우리 민족의 이름짓기풍습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내려오면서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과 전통들 가운데는 이름짓기풍습도 있다.

이름이란 사회적집단을 이룬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매 사람마다 지어 붙인 말을 말한다.

성과 이름은 사회적존재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호칭으로서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사회를 이루고 생활하는 과정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해당 국가나 민족의 사회제도와 가족제도, 문화와 풍습 등과 밀접히 련관되어있기때문에 그 구성형식과 리용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있다.

이름의 구성형식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웰남 등과 같은 아시아나라들에서는 성을 앞에 놓고 이름을 뒤에 놓지만 로씨야, 영국, 프랑스, 도이칠란트를 비롯한 유럽나라들에서는 이름을 앞에 놓고 성을 뒤에 놓는다.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름, 부칭, 성의 형식을 취하고있다.

예로부터 중앙집권적통치제도와 가부장적가족제도가 매우 강하였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에서는 성이 사람들의 출신성분이나 지위를 강조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무까지도 부여하였기때문에 이름보다 더 중요한것으로 간주되어 이름의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인민들이 이름 석자라고 하는 성과 이름에는 가문의 피줄과 항렬관계가 표시되었다. 맨 앞에 붙은 성은 아버지계렬의 피줄을 나타내며 그뒤에 붙은 이름 두 글자중에서 한 글자는 형제나 가문의 돌림자이고 나머지 한 글자는 본인을 가리켰다. 형제나 가문의 항렬관계를 나타내는 돌림자는 이름의 앞에 오기도 하고 뒤에 오기도 하였다.

례를 들어 김진혁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김》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을 표시하고 돌림자인 《진》은 자기의 형제나 가문의 같은 항렬에 속한 사람들의 형제관계를 나타내며 《혁》은 그자신을 나타낸다.

이름들은 대체로 고유어로 달았다.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선조들은 고대조선말로 된 이름들을 달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동방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B.C. 277년-A.D. 668년)를 세운 동명왕의 이름인 주몽은 당시 사람들속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가리켜 부르던 말로서 고유어로 지은 이름이였다.

조선사람들은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고장의 산이나 강, 우물, 호수와 같은 개별적대상들의 이름을 따거나 얼굴생김새나 부모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형제사이에 돌림자를 널리 리용하였는데 이름만 보고도 가까운 형제, 혈육이라는것을 쉽게 알아볼수 있었다.

일제는 군사적강점시기 조선사람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제창한 《창씨개명》이란 조선사람들의 본래의 성을 버리고 일본식으로 성을 새로 정하며 이름도 일본식으로 고친다는것을 말한다.

저들의 어용사가들을 내세워 조선성의 발생시기를 고의적으로 늦잡는 터무니없는 역사외곡놀음을 교활하게 벌려온 일제는 1930년대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완전히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리 인민은 조국이 해방되어서야 비로소 민족의 녁과 전통을 다시 찾게 되었고 자기의 옳바른 이름도 가지게 되었다. 이전시기의 고유어이름들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고유어이름들이 적지 않게 생겨났다.

대표적인 이름들로는 《구술》, 《술기》, 《시내》, 《봄》, 《노을》 등을 들수 있다.

뿐만아니라 《충복》, 《충심》, 《효녀》, 《효심》, 《은혜》, 《은덕》, 《은정》, 《행복》을 비롯하여 뜻이 깊으면서도 부르기도 좋고 시대적미감에 맞는 이름들을 지어주고있다.

오늘날에도 이름짓기풍습은 련면히 계승되고 있다.

김세현

# 정월대보름과 달맞이풍습

정월대보름은 설명절, 추석과 함께 우리 인민들이 즐겨 쇠여온 민속명절의 하나이다.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전날인 음력 1월 1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14일은 작은보름, 15일은 대보름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대보름명절에 새해의 행운과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한 여러가지 의례행사를 진행하였다. 고려시기에는 대보름명절이 민속명절의 하나로서 널리 일반화되어있었다.

대보름명절의 행사로서 작은보름의 화적놀이와 대보름의 달맞이 등이 있었다.

14일에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를 위주로 하였는데 이날 날가리대를 세우는것과 함께 아침일찍 퇴비를 논밭에 내

는 풍습도 있었다.

이러한 풍습은 새해에도 부지런히 일하여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우리 인민의 근면성을 보여주고있다.

대보름날 저녁이면 사람들은 마을의 높은 산이나 언덕에 올라가 솟아오르는 등근달을 구경하였는데 이것을 달맞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달을 먼저 본 사람에게는 그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였으며 가정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정월대보름날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들도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민속놀이에는 연띄우기와 바람개비놀이, 바줄당기기 등이 있었다.

대보름명절날에는 민족음식들을 차려놓고 서로 나누어먹으면서 즐겁게 지냈다.

오늘도 가정들과 급양봉사당들에서는 오퍩밥, 9가지 마른나물반찬을 비롯한 민족음식들과 료리들로 식탁을 채운다. 그리고 가정들에서는 장기, 윷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공원과 광장들에서는 연을 띄우며 웃고떠드는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펼쳐진다.

경치아름다운 모란봉의 을밀대와 최승대, 부벽루 등 전국각지에서 달맞이풍경도 이채롭게 펼쳐지곤 한다.

정월대보름과 달맞이풍습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글 김영은, 사진 김혁철



천연기념물

# 청류벽회화나무

청류벽회화나무는 평양에 있는 모란봉 청류벽의 벼랑에 있다. 룡라다리에서 약 700m 올라가 있는 나무는 매우 기이하게 생긴것으로 하여 청류벽의 풍치를 돋구어주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천연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보호관리되고있다.

나무는 잎이 지는 키나무로서 높이는 10m이다.

이 회화나무는 뿌리인지 줄기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켜기모양을 하고 벼랑이 약간 오목하게 패인 곳에 들어박혀 5m까지 자라다가 여러개의 굵은 가지를 쳤다.

나무는 대동강쪽으로 부채살처럼 나무갓을 펼치면서 자라고있다.

약 200년 된 이 나무가 자라는 벼랑의 모양은 갈색산림토양이고 길다.

글 및 사진 김일봉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